

# 환영사

2024. 11. 26. (화) 14:00 ~ 14:03 (3분)

은행회관 세미나실(14층)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들과  
금융소비자를 대표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I 금융접근성 보장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된 가운데  
고물가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비용 절감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습니다.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물리적인 점포 등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非도심 거주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견 불가피한 추세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산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은  
엄격한 규율체계의 보호 속에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산업이며,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여 간  
약 1,000개의 점포가 사라지고  
약 10,000개의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이러한 책무를 충분히 고민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Ⅲ 공감의 장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참석자 여러분,

그동안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은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금융접근성 저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만의 노력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산발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함께  
금융접근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점포, 이동점포와 같은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IV 맺음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이 창출되기를 기대하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